

# 플립러닝을 적용한 일본문학 수업의 사전학습

—사전학습 자료의 분류를 중심으로—

윤 유 찬\*

(e-mail : 2maime@hanmail.net)

## < 목 차 >

1. 들어가며
2. 선행연구
3. 사전학습 자료의 유형
  - 3.1. 사전학습의 필수요소
  - 3.2. 개발형 사전학습 자료
  - 3.3. 공유형 사전학습 자료
  - 3.4. 기존의 사전학습 자료
4. KOCW를 활용한 수업 사례
5. 나오며

키워드 : 日本文学教育(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フリップラーニング(flipped learning), 事前学習(prior learning), 事前学習資料(prior learning data), KOCW(Korea Open Course Ware)

## 1. 들어가며

요즘 인문학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급격한 미디어의 발달로 사람들이 종이로 인쇄된 문학 작품에서 멀어졌고 곧 종이책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물론 최근의 미디어나 인터넷의 급격한 발달은 기존에 인쇄된 책으로 대표되던 문학이라는 장르에서 웹북이나 오디오북이라는 형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4차혁명이라는 최첨단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오히려 인문학에서 새로운 출구를 모색하는 사람도 있다. 인문학 중에서도 문학은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분야일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문학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더욱이 외국 문학인 일본 문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구하려는 것이 본

\* 경북대학교 강사, 문학교육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이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수업의 형태도 전통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교수학습법의 도입을 통해 학습자에게 맞추어 변화해야 한다. 하지만 일본문학 수업의 형태는 특히 일본문학개론처럼 지식의 전달이 주가 되거나, 작품 감상의 경우에는 작가론이나 작품론적인 입장에서 이전에 배운 내용을 답습하고 있다. 작가와 작품이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이 있을지 모르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일본문학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대상으로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다. 물론 최근의 일본문학 교육과 관련되는 연구들이 새로운 일련의 움직임 보여주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요즘 교육현장의 큰 흐름 중의 하나인 플립러닝<sup>1)</sup>이라는 교수법을 일본문학 수업에 적용해보자 한다.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의 사전학습 활동을 통해서 얻은 개념적인 이해를 발판으로 본 학습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교수 방법으로 최근 학교현장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수업 전에 학생들이 미리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본 수업에 들어가서 학습이해를 전제로 본 수업시간에는 확인과 심화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본 논문은 플립러닝의 성공이 적절한 사전학습<sup>2)</sup>을 제공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보고, 다양한 형태의 사전학습 자료의 실태를 분석하고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문학 교육에서 학습자에 요구나 수업의 상황에 부합하는 사전학습 자료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 2. 선행연구

이제까지의 일본문학은 학습자에게는 감상의 대상이었지만 교수자에게는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가르치는 것으로서의 일본문학, 즉 일본문학 교육에 대한 교수방법론

- 1) 플립러닝은 역전학습, 거꾸로 교실, 플립러닝, 플립드러닝, 역진행 수업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본 논문에서는 ‘플립러닝’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 2) 수업에 참여하기 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단계로 주로 교수자가 제공하는 동영상이나 다양한 수업자료로 지식을 쌓는 과정이다. Pre-class나 사전 학습과정이라고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으로 통일하여 지칭한다.

적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문학을 가르치는 일선의 교수자들은 누구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한국일본문화학회 제 38회(2010)와 제 39회(2011)의 국제학술대회는 의미가 깊다. 일본문학 교육이라는 개념의 인식과 수업 사례발표, 심포지엄을 통해 일본문학 수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플립러닝이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되는 수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문학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경우는 드물다. 일례로 일본어와 일본문학 수업과 관련한 플립러닝에 대한 연구는 일본 내에서도 그리 많지 않다.

한국에서의 플립러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본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권영성의 「플립러닝의 도입과 일본어교육」, 조대하의 「플립러닝을 활용한 일본어교육 사례 연구」, 김영아(2018)의 「韓日の大学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フリップラーニングについての一考察」이 있다. 그 중 한국과 일본의 플립러닝의 현황을 사례 분석한 김영아의 연구는 일본어 교육에 플립러닝을 적용하는 상황을 파악하는 것에 의미 있는 연구 자료라고 생각한다. 김영아는 플립러닝을 강의 전반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의 일부로만 도입하여 전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수나 플립러닝의 횟수, 사전 학습의 동영상 직접 만들었는지 인터넷상의 자료를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교수자와 학습자의 구별없이 교수자 위주로만 기술되어 있는 점과 사후평가나 지도에 대해 기술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sup>3)</sup>

본 수업에서 사전학습을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플립러닝의 사례로 포함시킨다면 일본문학과 관련해서는 학습자료로 영화를 사용한 일본문학 수업은 비교적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김활란(2016)은 일본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작품을 중심으로 영상을 이용한 일본현대소설의 수업방안을 제시하고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 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sup>4)</sup> 책보다 영상을 가까이 하는 학습자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소설의 다른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원작소설에 호기심을 갖게 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영화를 보는 수업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았지만 발표나 토론으로 진행한 수업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도 높았다는 점이다. 이 형식을 플립러닝으로 생각하면 수업시간에 사전학습과 본 수업을 순차적으로 진행

3) 金英兒(2018) 「韓日の大学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フリップラーニング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文学学報』 76輯, 韓国日本文学会, pp.311-325.

4) 김활란(2016) 「영상을 이용한 일본현대소설의 수업방안」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259-260.

한 것이지만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은 발표식 토론식의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 방식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윤혜영(2015)은 일본문학사 수업에서 문화를 도입하여 흥미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일본문학 작품이 모티브가 되거나 일부 사용되고 있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매체를 이용하는 것과 문학을 살려 지역 특성화에 성공한 사례, 작가들이 모델인 일본 지폐를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sup>5)</sup> 문학수업의 도입에서 작가나 작품, 문예사조의 설명보다 사전에 이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것으로서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플립러닝이라는 단어를 직접 인용한 일본문학 관련 연구로는 이애숙(2015)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애숙은 인문학의 위기 상황에서 일본문학 교육의 현황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교육 형태로 플립러닝을 새로운 열린 교육의 한 방식으로 소개하였지만 실제 수업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sup>6)</sup>

문학 작품의 읽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플립러닝을 적용한 선행연구로서는 이정희(2015)의 토론수업을 활용한 일본문학감상의 Active Learning가 있다. 아베 코보의 『모래의 여자』라는 작품을 중심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한 수업사례의 연구는 액티브러닝을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독서 토론으로 소설을 읽는 재미를 느끼게 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일본문학 수업에서의 플립러닝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워크북의 작성이나 플립러닝을 점검하기 위한 퀴즈 항목의 설정은 뛰어난 수업 사례의 표본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전 수업자료로 영화와 만화로 된 작품을 제공하고 번역하게 하는 것은 일본어 실력의 향상과 더불어 전체 스토리와 줄거리를 파악 할 수 있는 이상적인 수업 방안이었다고 생각한다.<sup>7)</sup> 이정희의 수업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선행연구 중 가장 플립러닝에 가까운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액티브 리딩을 강조하기 위해 플립러닝의 사전 학습적인 부분만 다룬 것이 아쉽고 액티브 리딩도 플립러닝의 한 방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수업방안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사전학습과 본 학습의 구분이나 연계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개 사전학습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플립러닝이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시간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것

5) 윤혜영(2015) 「일본문학수업 방법론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49-159.

6) 이애숙(2015) 「일본문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일본어문학』 제69집, 일본어문학회, pp.215-217.

7) 이정희(2015) 「토론수업을 활용한 일본문학감상의 Active Learning」 『일본문화학보』 제6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65-175.

은 사실이다. 집에서든 학습하고 교실에서도 수업을 진행하면 수업시간이 2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전학습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 사전학습 자료는 꼭 동영상일 필요가 없고 그 시간이 강의 시간과 동일한 것도 아니다. 기존에 교수자가 제공하던 PPT 같은 강의 자료도 훌륭한 사전학습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플립러닝을 위해서는 우선 사전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를 통해 자료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유형과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문학 교육에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전학습 자료의 사례를 실제 교육안에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3. 사전학습 자료의 유형

#### 3.1. 사전학습의 필수적 요소

사전학습은 본 학습으로 이어지는 연계 과정이고 본 학습을 위한 선결과제이다. 사전학습의 성취도는 바로 본 학습으로 이어지지만 아직 우리에게선 사전학습이라는 용어보다 예습이라는 단어가 익숙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사전학습 자료의 유형을 분석하기 전에 사전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일본문학 수업은 작품을 읽고 감상하여 분석한다는 입장에서 작품의 읽기를 기본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읽기는 큰 의미에서 대표적인 플립러닝의 사전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문학 감상이나 분석의 수업을 플립러닝이라고 생각하는 교수자나 학습자는 없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전학습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교실에서 진행할 지식 전달과 관련되는 교수자의 강의 동영상을 사전학습 자료라고 생각하고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을 사전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전학습을 교수자의 수업 동영상 시청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 교수자의 문서형의 강의자료를 미리 읽어본다거나, 관련 영화의 감상, 작품의 읽고 요약하기 등도 훌륭한 사전학습이 될 수 있다.

우선 사전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의 학습목표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본 수업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작품 감상의 토론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작품을 읽어 오라고 하면 이전에 그 작품의 정보가 없는 학습자는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당황스럽다. 목적성이 없는 막연한 읽기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기억하기도 어렵다. 작품읽

기의 사전학습의 진행은 확인할 수 있는 읽기의 주제와 분량, 확인할 사항 등 본 수업의 학습활동과 연계되는 내용의 학습을 제시하여야 한다. 플립러닝의 강점 중 하나가 자기주도적인 학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목표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

두 번째로 교수자는 사전학습의 진행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보통 학습자는 교수자가 제공한 강의자료를 사전학습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즘은 강의 진행을 위한 PPT 자료나 문서형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자료들을 수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제공한다. 그러면서 교수자는 수업 전에 학습자가 강의 자료를 읽고 사전학습 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학습자는 드물다. 그래서 교수자는 강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학습이 안 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한 토론이나 상위 학습을 진행하지 못하고 자료를 다시 설명해주는 하위 학습 활동부터 시작해야 한다.

교수자의 강의자료가 사전학습 자료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강의자료의 사전학습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수자가 사전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사전학습을 요구하지만 학습자는 그냥 일상적인 예습을 하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당장 수업에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력해서 가지고 올 뿐 사전에 게시되거나 제공된 자료라도 사전학습을 진행하지 않는다. 사전학습이 안 되었다는 가정하에 기초적인 지식부터 수업에 다루게 되고, 이런 수업 진행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학습자는 사전학습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강의자료를 사전학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형성평가나 질문을 통해 사전학습을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과 그 사전학습을 기본으로 하는 본 학습의 진행이 필요하다. 물론 강의자료는 이해가 가능하게 자세히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다.

### 3.2. 개발형 사전학습 자료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이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집에서 선행하여 학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업 내용과 같은 교수자의 강의를 기대하고 동영상 강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사전학습의 수업자료가 반드시 동영상 콘텐츠일 필요는 없다. 학습자들의 집단심층 토의를 통해서 확인된 학습자가 선호하는 사전학습 자료는 동영상을 비롯해서 교수자의 PDF 수업자료, PPT, 퀴즈나 문제 해설집 등이 뽑혔다. 단지 학습자들이 디지털 세대가 주를 이루고 매체에 민감하며 시각적 채널을 선호하기 때문에 주로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오히려 성공적인 플립러닝을 위하여 교육

목표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자료를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한다.<sup>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자가 직접 동영상 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많은 교수자들이 동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콘텐츠를 꼭 잘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다. 교수자는 연기자가 아니며 강의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전문 프로그램을 구매할 필요도 없다. 콘텐츠의 형식이 아닌 내용이 얼마나 교육목표에 부합하고 학습자를 이해시키느냐가 중요하다. 또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 기술이 없더라도 보통 대학에서는 교수학습지원센터 내의 이러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하거나 저작도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도 존재한다.

이마저도 어렵다면 교수자가 강의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다.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쇼의 하위메뉴인 슬라이드 쇼 녹화를 이용하면 교수자의 음성만 추가되지만 전체 슬라이드를 녹화하여 사전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파워포인트로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는 방법으로는 파워포인트의 확장 서비스 팩 개념인 Office Mix를 활용하면 기존의 파워포인트의 메뉴에 추가된 기능으로 동영상을 제작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활용이 PPT 슬라이드를 배경으로 자료를 녹화하는 Slide Recording이다.

꼭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핸드폰이나 캠코더를 통해서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음성으로 설명하는 동영상도 훌륭한 학습 자료가 될 수 있다. 인터넷 학습에서 교수자의 영상의 유무가 학습자의 집중도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줄거리의 구조도 같은 판서형 수업으로 콘텐츠를 만든다면 필기와 음성 설명만으로도 콘텐츠를 완성할 수 있다. 가끔 동영상 콘텐츠라고 하면 수업과 동일한 시간의 콘텐츠를 작성하려는 경우도 있는데 동영상 강의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수업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장시간의 온라인 강의는 학습자의 집중도를 떨어뜨리므로 이런 특성도 반영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꼭 동영상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교수자가 작성한 강의자료나 PPT도 개발형 사전학습 자료로 분류 할 수 있는데 이런 자료가 단지 자료의 제시가 아니라 사전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 진행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8) 최정빈(2018) 『플립러닝 교수설계와 수업전략』 성안당, p.95.

### 3.3. 공유형 사전학습 자료

공유 사전학습 자료는 교수자나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자료로, 예를들면 유튜브나 OCW, MOOC 등 국내외의 공개된 학습자료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자료를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교육자원공개)이라고 하며 탑재정보의 무료 개방조건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OER기관으로는 MIT, UNESCO, GLOBE 등이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아쉽게도 일본어나 일본문학 관련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OER이 방송통신대학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기존의 OER 또는 대학별 OCW의 이론 및 학문중심적 콘텐츠가 아닌 4050세대의 제2차 경력개발 및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성인학습자 친화형 OER 콘텐츠를 개발되었기 때문이다.<sup>9)</sup>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OER에서 일본문학은 물론이고 일본어와 관련되는 자료는 기대하기 어렵고 일본의 OER 자료도 일본문학과 관련되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

오픈강좌로 전세계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글로벌 지식보고체는 무크(MOOC)이다.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온라인 공개 수업의 약자로 수강인원에 제한 없이(Massive),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Open), 웹 기반으로(Online)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Course)를 말한다. 무크(MOOC)는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던 기존의 온라인 학습동영상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제출 등 양방향 학습이 가능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무료 온라인 공개강의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 활용이 미비하여 일본문학 수업의 사전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 다른 무크들의 자료는 주로 영어로 작성되어 있어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2015년 10월부터 한국형 무크(K-MOOC)<sup>10)</sup>라는 형태로 서울대, KAIST 등 10개 국내 우수대학의 총 27개 강좌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140개 강좌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총 500개 이상의 강좌 운영을 목표로 매년 강좌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문학과 관련되는 강좌는 없으며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배은정 선생님의 일본어문법 강의를 제외하면 일본 관련 강좌는 전무하다. KMOOC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양방향 학습으로 질 좋은 사전학습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일본문학 관련 강좌가 없어서 당장은 그 활용이 어렵다. 일본어문학 관련 교수자의 참여가 시급한 상황이다.

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ER 홈페이지 : <http://oer.knou.ac.kr/intro.do>(검색일2019.03.05.)

10) K-MOOC 홈페이지 : <http://www.kmooc.kr/>(검색일2019.03.05.)

그래도 일본문학 관련 사전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대학 강의를 주로 수록하고 있는 KOCW(Korea OpenCourseWare)이다.<sup>11)</sup> OCW(OpenCourseWare)는 학습자들이 교육 및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수/학습자료를 뜻하며, KOCW는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강의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등교육의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체제이며 전세계적인 OCW의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23만8천여 건의 강좌가 공개되어 있으며, 실제 강의를 녹화한 것, 편집하거나 제작된 형태, 관련 방송자료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일본문학을 검색해보면 대학 강의가 15개, 수업자료가 10개 검색된다. 하지만 대학 강의 중 7개는 현대 한국 문학과 사회변모, 국문학사, 영화론 같은 일본문학과 무관한 강의로 확인된다. 따라서 일본문학 수업에서는 활용할 수 없고 일본문학과 사회(울산대학교 신선향), 일본 근세문학과 함께하는 일본만화의 기원과 발전(건국대학교 최태화), 일본문학개설(울산대학교 홍성목), 일본 현대 문학 연습(영남대학교 최범순), 명저로 읽는 일본 사회와 문화(대구한의대학교 김영), 일본문예사상의 이해(울산대학교 신선향), 일본문학강독(대구한의대학교 김영), 일본문학(인하대학교 왕숙영)의 8개의 강의만 사전학습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수업자료 10개 중 하나는 동양고전의 이해로 중국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일본문학개론(가천대학교 박진수), 일본문학과 영상예술(한국외국어대학교 황봉모), 일본의 음악과 문화(가천대학교 박진수), 일본문학길라잡이 1(한국외국어대학교 황봉모), 일본소설문학(한국외국어대학교 황봉모), 일본현대문학특강(한국외국어대학교 황봉모), 오래된 지혜-동양문학의 세계(부산외국어대학교 박정이), 동양문학의 이해(가천대학교 박진수)가 있었다. 구체적인 목차와 내용의 분석은 다 기록하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최신의 자료보다 기존의 강의에서 활용한 자료로 오래된 자료가 많고 자료의 양도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들을 사전학습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목차와 내용을 확인하여 어떤 식으로 활용하여 학습목표에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 대표적인 동영상 정보원인 유튜브는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보의 수준과 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사전학습 자료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방대한 영상자료의 양은 결코 무시할 수 없으며 수준 높은 학습자료도 일부 존재하므로 유튜브를 사전학습 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도 중요하지만 자료의 선별과정을 통하여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시해

11) KOCW 홈페이지 : <http://www.kocw.net>(검색일2019.03.05.)

주어야 한다. 일본문학과 관련되는 많은 영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학습 자료로서는 옥석을 가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 3.4. 기존의 사전학습 자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본문학의 경우에는 사전학습 자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인쇄 형태의 문학 작품이 존재하고 그런 문학작품의 내용이나 그것을 모티브로 영화화한 영상이 존재한다. 또 최근 미디어믹스의 영향으로 책의 내용이 만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오디오북으로 발행되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단지 영화를 보거나 작품을 읽는 행위가 사전학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줄거리나 전체적인 맥락의 확인이 가능하고 학습목표에 부합시켜 적극적인 읽기나 감상이 진행되고 사전학습의 진행을 정확하게 체크한다면 적절한 사전학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예로 무라카미 하루키의 『ルウェイの森』은 한국에서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의 숲』으로 번역된 번역서가 있고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트란안홍 감독의 영화도 있다. 또 한솔씨엔엠 오디오에서 발행한 506분 분량의 오디오북도 존재하며 유튜브에서도 오디오북 형식의 동영상도 있어서 얼마든지 사전학습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런 사전학습 자료를 선정하고 분류해서 학습목표에 따라 활용하는지에 문제이다.

또, 사전학습 자료는 한가지 자료나 유형을 고집하기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학습목표에 맞는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 4. KOCW를 활용한 수업 사례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사전학습 자료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서 공개형 사전학습 자료 중 KOCW의 자료를 활용한 수업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목의 설정은 일본문학개론이지만 다른 일본문학 수업과 관련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단원은 중고시대 모노가타리 문학의 이해 중 덴키모노가타리와 우타모노가타리의 소개 부분으로 이 단원을 선택한 이유는 중고시대 산문문학의 발달과 이후 겐지모노가타리로 이어지는 흐름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강의 자료는 모노가타리 문학을 흐름

을 이해하기 위한 도식이나 시대상황의 설명을 통한 모노가타리 문학의 발생에 대한 설명이 주가 되었을 것이다. 거기에 대표작품의 일부분을 감상하는 수업진행이 일반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플립러닝의 차별화된 수업절차 모형은 크게 사전단계, 사전학습 평가, 사전학습 연계, 발표·토론 및 협력학습, 핵심요약, 개별·팀 평가, 사후성찰의 7단계를 거치는데 이 중의 KOCW의 활용은 사전단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차시별 강의계획표로 정리한다.

〈表1〉 주차별 강의 계획서

과목명	일본문학개론	수강 대상	2학년 2학기	구분	전공필수
단원	중고시대 산문문학		학습 내용	덴키모노가타리, 우타 모노가타리의 이해	
학습 목표	중고시대 시대상황이 반영된 모노가타리 문학의 특징을 진술할 수 있다 모노가타리 문학의 성립과 발전을 설명할 수 있다.				
플립러닝 단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사전학습	중고시대의 문학2(47분)시청 대표적인 모노가타리의 줄거리 와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부분 제시		사전에 제시된 동영상 학습 선택한 작품내용 읽기		
사전학습의평가	사전학습 평가		단답형 퀴즈 실시(15분)		
사전학습의 연계	본차시 학습목표 제시		작품선정의 이유 토의(20분)		
발표·토론 및 협력학습	작품별 특징 토의		작품 분석 팀별 의견 발표정리(60분)		
핵심요약	모노가타리문학의 특징 정리		교수자 요약 정리(20분)		
개별·팀 평가	개별·팀 평가 시행		동료평가지 제출, 개별활동 수행서 제출(20분)		
사후 활동	학습성찰		배운점 느낀점 기록(20분)		

학습목표는 중고시대 시대상황이 반영된 모노가타리 문학의 특징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전학습을 진행한다. 사전학습은 KOCW에 등록되어 있는 울산대학교 홍성

목 교수님께서 2016년 2학기에 수업을 진행한 일본문학개설 중 8차시 중고시대의 문학 2(47분)를 활용한다. 7차시의 내용에서 이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의 학습에 대해서는 학습자에게 안내하고 학습여부는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에 따른다. 8차시에서 사전학습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중고시대 시대 상황과 모노가타리 문학의 발생과 대표작의 대략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다른 사전학습 자료로 대표적 모노가타리 작품인 다케토리모노가타리, 우츠호모노가타리, 오치쿠보모노가타리, 이세모노가타리, 야마토모노가타리의 줄거리와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부분을 각각 제시한다. 학습자는 강의를 듣고 가장 중고시대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 이유와 내용을 분석하게 한다.

본 수업으로 단답식 퀴즈를 통해서 사전학습 평가를 실시하고 본 수업의 학습목표를 제시한다. 같은 작품을 선정한 학습자들끼리 같은 팀을 구성하게 하고 학습자들에게는 작품선정의 이유를 서로 토의하면서 팀협의를 통해서 팀별 협동학습 내용을 정리한다. 팀별로 대표작의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는지는 조별 협의의 참여도에 따라서 분석한다. 평가로 사전학습과 관련하여 동료 평가지를 제출하게 하고 개별 활동 수행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한다. 학습자의 토론 참여나 발표 같은 수업태도도 평가의 요소에 포함시킨다. 마지막으로 배운 점과 느낀 점을 정리하며 학습을 성찰한다. 교수자는 추가 학습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이런 플립러닝 수업의 목적은 기존의 모노가타리 문학의 발생과 분류라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서 탈피하여 시대 상황에 따른 모노가타리 문학의 성립과 문학작품의 반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발표를 통해 작품에 대한 다른 학습자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학습량의 적절한 안배와 토의를 통한 의견 조율을 기대할 수 있다.

## 5. 나오며

플립러닝은 학습자들의 사전학습 활동을 통해서 얻은 개념적인 이해를 발판으로 본 학습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과 학습활동을 촉진하는 교수 방법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전학습과 본 학습의 연계가 긴밀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설계되어야 한다. 잘못된 사전학습의 설계는 본 학습과 학습내용이나 시간이 중복되어 학습시간의 증가로 이어

저, 학습자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사전학습 수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일본문학 교육에서도 플립러닝의 적용을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이 사전학습의 설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플립러닝을 일본문학 수업에 적용하기 위한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학습 자료를 분류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필자는 실제로 플립러닝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플립러닝의 효과성과 각각의 사전학습 자료가 어떤 효과로 수업에 의미가 있는지를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 효과성과 의미를 찾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플립러닝의 사전학습에서 여러가지 실패요인이 존재하지만 가장 큰 실패요인은 학습자가 사전학습을 정확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형성평가 등으로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토론의 결과로 평가를 진행하여도 사전학습을 하고 본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플립러닝의 효과를 명확하게 도출하지 못한 적이 종종 있다. 효과적인 사전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학습을 진행하게 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일본문학을 가르치는 일선의 교수자들은 누구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학습자들에게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그 방법의 공유나 학습자료의 공유에 대해서는 인색하여 일본문학 교육에서 다양한 사전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료의 절대적인 양은 무척 부족한 현실이다. 또, 일본에서도 문학수업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본의 사전학습 자료는 교수자가 정한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것을 찾기 어렵고 일본어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짧은 사전학습 시간에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부족한 일본문학 교육 사전학습 자료의 현실을 생각하면 일본의 국문학 교육과 관련되는 사전학습 자료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 【참고문헌】

김활란(2016) 「영상을 이용한 일본현대소설의 수업방안」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p.241-264.  
 윤혜영(2015) 「일본문학수업 방법론 연구」 『일본문화학보』 제6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49-159.

- 이애숙(2015) 「일본문학교육의 현황과 전망」 『일본어문학』 제69집, 일본어문학회, pp.215-217.
- 이정희(2015) 「토론수업을 활용한 일본문학감상의 Active Learning」 『일본문화학보』 제66집, 한국일본문화학회, pp.165-175.
- 최정빈(2018) 『플립드러닝 교수설계와 수업전략』, 성안당, p95.
- 金英兒(2018) 「韓日の大学の日本語教育におけるフリップラーニングについての一考察」 『日本文化学報』 第76輯, 韓国日本文化学会, pp.311-325.  
(DOI:<https://DOI.org/10.21481/jbunka..76.201802.311/>)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ER 홈페이지: <http://oer.knou.ac.kr/intro.do>(검색일2019.03.05.)
- K-MOOC 홈페이지: <http://www.kmooc.kr/>(검색일2019.03.05.)
- KOCW 홈페이지: <http://www.kocw.net/>(검색일2019.03.05.)

논문 투고 일자 : 2019. 04. 14.
논문 심사 일자 : 2019. 05.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05. 07.

---

**<要旨>**


---

反転授業を適用した日本文学授業の事前学習  
-事前学習資料の分類を中心に-

尹庾燦

本論文は、日本文学教育の新しい教授方法論として、教育現場の大きな流れの一つであるフリップラーニングという教授法を適用するための事前学習資料を分類してみた。理想的なフリップラーニングとなるためには、講義室の外の事前学習と講義室の中の本学習が適切に相互作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始まりは適切な事前学習を提供することである。既存の多様な事前学習の形態を紹介することで、学習者の要求と状況に応じた事前学習資料を選定できるように助けるのが目的である。事前学習というと、教授者が撮影・編集した動画を考えやすいが、必ずしも動画である必要はなく、本授業と連携する学習目標を提示し、徹底的に事前学習ができているかを確認することによって、適切な事前学習が行われるようにする。教授者が個別に作成する開発型事前学習資料の他に、OER、KMOOC、KOCWのような共有型事前学習資料も存在するが、日本文学と関連する事前学習資料は絶対的に不足している。また、実質的な事前学習資料として、不十分ではあるが授業案をフリップラーニングの例示として提示した。

Combining Prior Learning in Japanese Literature Classes with Flipped Learning  
-Classification of prior learning materials-

Yoon, Yoo-Chan

In this study a new teaching method of Japanese literature education, flipped learning, is examined, as one of the great flow of education field. To create an ideal flipped learning classroom, it is necessary to induce proper interaction between prior learning outside the classroom and within the classroom, it begins by providing appropriate prior learning. The study aimed to introduce various existing forms of prior learning so that they can be selected according to the needs or circumstances of learners. Prior learning makes it easy to think of a video taken by a professor, but it does not have to be a video, it provides a learning goal linked to this class, and ensures that it is thoroughly prior learning.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type prior learning materials written individually by professors, there are shared prior learning materials, such as OER, KMOOC, and KOCW, however, there is a definite lack of prior learning materials related to Japanese literature. Furthermore, as a material of practical prior learning, the class plan was presented as an example of flipped learning, although it was insufficient.